

01 교회소식

쉽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공고민주공화국과 러시아 목회자들이 보내온 해외서신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같이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해도 법사에 믿음으로 행하면 약속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분~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고된 이민생활 가운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캐나다 토론토만민교회 성도들.

04 간증

“세상 부자도 부럽지 않네요!”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 김종하 집사와 우상을 버린 뒤 각종 문제를 해결 받은 몽골 우르차이흐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929호 2020년 9월 2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의 나라를 위해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지난 8월, 교단 총회장 및 주요 목회자들의 모임이 칼리닌그라드에서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도 참석했는데 이는 타 교단과의 협력 차원에서 매우 좋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사역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으며, 칼리닌그라드 지역에서 타 교단과 협의회를 조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리를 초월하여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찬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기독교 정치인, 주정부 인사, 그리고 러시아 정교, 루터교, 유대교, 기독교 주요 목회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국제복음주의협의회 대표 비탈리 블라센코 목사와 푸틴 대통령 종교 자문위원인 콘차로프 씨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초청받아 설교하고 ‘마치는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함께 모인 총회장급 목회자들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복음주의 교회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러시아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신

###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된 나이로비만민교회

케냐 정부에서 주관하는 ‘케냐 클린업(Kenya Clean-up)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가 지난 9월 12일, 나이로비만민교회(담임 정명호 목사)에서 있었다.

이 캠페인은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전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주거지역과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이다.

행정관서장과 참석한 대표자들은 행사 전, 정명호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캠페인의 시작을 만민교회에서 잘 준비해 준 것과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들을 위한 선교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정 목사는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또 모든 것이 협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다. 지방정부에서는 나이로비만민교회 부목사 2명에게 우모자 각 가정과 건물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공식 허용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네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17:15~18)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 분배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서러운 노예생활을 겪었고,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7년이라는 긴 시간 힘든 전투를 치른 소산을 얻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일족이 함께 모여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정복한 성읍들뿐 아니라 아직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성읍들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남아 있는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진멸하고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다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 1. 기업 분배할 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요단 서편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몇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먼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받았습니. 모세 당시에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이 자신들의 많은 가족을 기르기에 적합한 것을 보고 모세에게 요청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들도 전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지요. 오히려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움으로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돌아갈 때까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민 32:1~19).

과연 이들은 가족과 가족, 재물은 다 요단 동편에 남겨둔 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만 요단을 건너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보다 앞장서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중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예외적으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지파보다 번성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각각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두 지파 반과 레위 지파를 제외한 아홉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토지 분배는 인구 비례에 따라 하되 어떤 토지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민 26:52~56). 이는 각 지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제비뽑기의 결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잠 16:33). 전에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는 과정에서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정확히 범죄한 아간을 뽑아 내셨던 것입니다.

## 2. 요셉 지파의 불평과 믿음 없는 고백

그런데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도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원래 한 지파이면서도 하나님께 축복받아 두 지파를 이룬 만큼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수 17:14).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다른 지파에 비교하여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 지역의 기름지고 좋은 토지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는 큰 민족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수 17:15)고 합니다. 주어진 영역 내에서 경작할 땅이 부족하다면 삼림을 개척하여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 자손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산지를 점령한다 해도 여전히 좁으니 더 넓고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들의 요구는 수고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과 자신들이 큰

족속이라 해서 섬김받기 원하는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다면 오히려 다른 지파들을 섬김으로 갈렙과 같이 앞장서서 어려운 지역을 자청하여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기업을 얻으려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점령할 땅의 거민들에게는 철병거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믿음 없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지요(수 17:16). 자신들의 조상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아야 했는지 어느새 잊은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큰 적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철병거가 아니라 어떤 무기가 있다 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순종했는데, 이제 스스로 싸워서 취하라 하니 갑자기 믿음 없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며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며 나갈 때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음껏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음을 당부하지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업 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맙니다(수 16:10, 17:12~13). 그 결과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져서 틈을 보이면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이방 풍속을 접하게 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 두고두고 어려움을 초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권능의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이 믿음만 내보이면 여호수아를 통해 나타내셨던 모든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 3. 여호수아와 레위 지파의 기업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권능을 행하는 자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맨 나중에 야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얻은 기업인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는 산기슭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성읍을 다시 중건해야 할 정도로 황폐한 상황이었지요(수 19:49~50).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수일 뿐 아니라 섬김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섬기고 양보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였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파가 토지를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자신들의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민 18:20). 레위 지파에게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귀중한 사명을 맡았지요(신 33:10).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맡은 레위 지파가 세상 일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기업이 나 토지의 소산물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와 각종 예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지요.

레위 지파란 바로 기름부음 받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야 하며, 그렇

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의 종과 일꾼들을 공개하는 것이지요. 비록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도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판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기업 가운데 있는 몇몇 성읍을 따로 구별하여 받은 레위 지파는 이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위치하게 되었지요. 이는 각 지파들이 가까이에서 레위 지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같이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범사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행하심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캐나다 토론토만민교회

#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서명자 권사 (64세)

저는 2018년 초,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건물주와도 화평을 좇기 위해 기도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통해 손목을 치료받은 제 간증을 손님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는 건물 매각을 핑계로 저희가 나가도록 압박해 왔고 2019년 12월, 더는 버틸 수 없어 식당 이전을 위해 이수진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 상황은 극도로 어려워져 2020년 3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매장의 남은 현금을 전부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얼마 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봉쇄 조치로 영업도 할 수 없었지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을 제게 인수하지 않겠냐고 제안해 온 것입니다. 편의점 일부를 식당으로 바꿔 편의점과 식당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일주일 안에 권리금과 설비 투자금 4만 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정부로부터 영세 사업자를 위한 코로나 대출 지원 사업이 개시됐고, 저는 신청한 지 3일 안에 기적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지요.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지인은 제가 편의점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었지만, 지인과 편의점을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므로 제가 편의점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수한 이곳은 안정적인 복권 판매와 담배 판매의 수익이 있어 매장을 운영해 가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뒤 주차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좀 더 다양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현재는 배달앱 서비스의 매출 증가와 함께 식당으로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어 축복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중 몇 번의 사업 실패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던 제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때, 섬세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퇴행성관절염을 치료받고 주의 일에 충성하니 기쁩니다”

이승예 집사 (51세)

저는 현재 토론토의 한인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약간의 증상만 있어도 출근할 수 없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콧물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한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수진 목사님이 인도하신 은사 집회가 떠올라 유튜브에 업로드된 토론토만민교회 금요철야예배에서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가뿐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팠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오래 꿇고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터에서

서빙을 하느라 많이 걸어 다녀야 하는데 걸을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지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 평소 더 많이 중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자 제 무릎이 치료되어 부드럽게 움직여졌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남아있던 무릎의 통증마저 깨끗이 사라져 일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저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고, 후보 제작 및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습니다!”

김종하 집사 (47세, 1대대 1교구)

저는 매우 가난한 가정의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오로지 가난하지 않은 미래를 소망하며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25살이 된 1998년에는 사귀던 여인의 전도로 대전만민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교회는 처음이라 낯선 면도 있었지만, 얼마 후 서울 만민중앙교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로 심했던 기관지염을 치료받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체하기 일쑤이던 허약한 몸이 믿음 생활을 한 뒤로는 점점 강건해졌고, 2000년에는 저를 전도해준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다니엘철야를 통해 기도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느새 성가대와 찬양 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아내(김이화 집사)는 만민하계수련회

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로 임파선염, 무릎관절염, 안구 건조, 목·허리·어깨 통증 등 여러 질병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2017년, 아들(김태호 형제)의 대입 준비를 위해 상경하면서 온 가족이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은사집회 시에는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아들의 오랫동안 고통 받던 아토피성 피부염과 다한증이 치료되었지요. 또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으니 제가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6월, 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다시금 체험케 되었습니다. 10m 높이에 있는 3층의 엘리베이터를 2층으로 내리기 위해 엘리베이터 위에서 작업하던 중 천장에 연결 고리가 풀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동료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1층으로 추락해 안타깝게

도 척추 3곳이 골절되고 쇠를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기하게도 3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구멍으로 튕겨 나가 3층 건물 바닥으로 떨어짐으로 약간의 타박상 외에는 멀쩡했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위 사람들도 매우 기이해했습니다.

만약 떨어지는 순간, 제 몸의 일부가 3층 출입구에 걸려있었다면 엘리베이터와 함께 떨어졌다면 몸이 절단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

다. 하나님을 믿으니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이처럼 지킴 받을 수 있음도 감사한데, 요즘에는 물질의 축복까지 주셔서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칩니다.

20여 년 전 아무 소망 없이 돈만을 모으며 인생을 살던 제가 주님을 만난 뒤, 세상 부자도 부럽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매우 행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우상을 버린 뒤, 가정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르차이흐 집사 (49세, 몽골만민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우상들을 과감히 불에 태워 버린 뒤,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남편이 전도돼 술과 담배를 단번에 끊었고, 목에 있던 심한 여드름도 치료받았으며, 작년에는 수년 된 손 습진까지 해결 받았습니다. 중국 유학을 갔던 큰아들은 비자 문제로 몽골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 큰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더니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돼 귀국할 수 있었지요.

또 둘째 아들은 인후염으로 목이 항상 붓고 고름이 생기며 열이 나 고통 받았으며, 두 딸은 자주 독감에 걸리고 폐렴으로까지 발전해 매우 독한 주사를 늘 맞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많이 섬기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몽골만민교회에 다니면서

만민교회에 온 뒤로는 자녀들의 이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됐으며, 약을 먹지 않아도 당회장님 기도도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몽골만민교회에 오기 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혈압에 문제가 있었고 신장과 췌장도 안 좋았으며, 정신과 마음마저 온전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며,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위가 심하게 아팠는데, 만민하계수련회 시 이수진 목사님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위에 뜨거움이 느껴지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후로도 아무 이상이 없지요.

제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은혜와 감동이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올 때면 작사·작곡으로 다양한 찬양곡을 만들어 주님께 저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찬 은혜의 새날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반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